

KazNKS

카자흐스탄 한국학네트워크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발행일: 2018.06.15



제 3 회 CIS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한국학학술대회

2017년 11월 25일(토) 제 3회 CIS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한국학학술대회 겸 인문학국제학술회의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한국 4개국 7개 대학에서 80명의 학생 및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관련기사 p.2)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관련기사 pp.2-4)

제 3 회 CIS 대학(원)생 한국학학술대회, 571 돌 한글 날기념 한국학포럼, 제 8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 외

동카자흐 국립대 / 광성 컬리지
(관련기사 p.5)

제 1 회 동카자흐스탄 한국어경연대회, 한국유학 설명회, TOPIK 모의고사

크질오르다 국립대
(관련기사 p.6)

한국 문화의 날, 컴퓨터센터 개관식, 한국 요리 수업, 경시대회 및 공모전 입상

카자흐 국립대
(관련기사 pp.7-8)

2017 한국학주간, 카자흐 국립대-건국대 공동학술대회, 의료봉사활동 통역지원, 2018 카자흐스탄 동양학올림피아드 외

* 이 뉴스레터는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kaznks.kz>)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카자흐스탄 인명 지명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Center for Korean Studies,
KazUIR&WL
Tole bi 84, Almaty, Kazakhstan
Homepage: <http://kaznks.kz>
E-mail: cks@ablaihan.kz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제 3 회 CIS 대학(원)생 학술대회

2017년 11월 25일(토)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이하 카자흐 세계언어대) 동양학캠퍼스(Tole bi 84)에서 제 3 회 CIS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한국학학술대회 겸 인문학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문후속세대양성과 학술교류활성화를 통한 한국학 및 인문학 기반강화를 위해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와 부산외대 러시아중양아시아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부산외대 CORE 사업단이 후원하였다.

2016년 4월 제 1 회 대회와 2016년 11월 제 2 회 대회에 이어 3 회째를 맞이한 올해 학술대회는 카자흐 세계언어대, 카자흐 국립대, 유라시아 국립대(이상 카자흐스탄), 비슈케크 인문대, 키르기스 국립대(이상 키르기스스탄), 노보시비르스크 국립대(러시아), 부산외대(한국) 등 4 개국 7 개 대학에서 학생 및 관계자 약 80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와 부산외대 러시아중양아시아연구소는 CIS 지역의 한국학과 인문학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내년에도 11월에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



571 돌 한글날기념 한국학포럼

2017년 10월 9일(월)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이하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571 돌 한글날과 한국학센터 개원 5 주년을 기념하여 한국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한국학 교원 및 학생 1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한글날을 기념하여 동영상 “한글 창제와 발전의 역사”를 감상한 후, “카자흐스탄 한국학의 현황”(김 울리야나)에 대한 발표에서 한국학센터를 개설하여 지난 5년간 진행해 온 한국학 사업의 성과를 소개하였다.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최초로 해외중핵대학사업에 선정되어 학술지, 뉴스레터, 학술대회, 경시대회 등 한국학 진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핵대학 육성사업은 해외 대학 중 한국학의 역사가 깊고 기반이 탄탄한 대학을 지원하여 한국학의 핵심기관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중앙아시아에서는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가 최초로 선정되었다.

학업 의욕을 고취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한국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 대학원 장학생,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 장학생, 한국학센터 장학생, R/A 장학생, 신한은행 카자흐스탄법인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행사를 마친 후 한국-중앙아시아 오픈포럼 2017~2018 학년도 제 1 차 발표회를 가졌다. 장호중 교수(한국국제교류재단 파견교수)는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발전을 위한 향후 사업 계획을 소개하였다.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제 8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2018년 2월 23일(금)부터 24일(토)까지 이틀에 걸쳐 제 8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를 개최하였다. 세계언어대 본관에서 개최된 이번 경시대회에는 어문학, 통번역, 한국어의 3 개 부문에 알마티, 아스타나, 악토베, 크질오르다, 우스티카메노고르스크, 타라즈, 비슈케크, 노보시비르스크 등 3 개국 8 개 도시 17 개 대학에서 60 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었다.

카자흐스탄 교육부가 주관하는 외국어올림피아드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어를 비롯하여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아랍어, 터키어, 페르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등 9 개 언어에서 어문학, 통번역, 복수외국어 3 개 영역 25 개 부문에 걸쳐 400 여 명의 대학생이 참가한 본 대회는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대학생 언어경시대회이다.

전체 개최식은 23 일 제 1 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개최식을 마치고 언어별로 대회가 진행되어 어문학과 한국어부문의 문법, 어휘론, 문학, 문화 등의 테스트와 작문이 실시되었고, 통번역부문은 번역 시험이 실시되었다. 오후에는 다른 도시에서 참가한 학생들을 위해 알마티 견학이, 인솔교원들을 위해 간담회와 특강이 진행되었다. 교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대학별 한국학 현황을 소개하고 한국학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어진 KF 특강에서 이근중 교수(KIMEP 대)는 “한국과 유라시아경제통합”을 주제로 유라시아 지역의 국가 및 기업 문화의 특성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24 일 어문학은 김현민 영사(주알마티 총영사관), 백태현 교수(비슈케크 인문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대중문화’를 주제로 발표한 참가자들의 프레젠테이션을 심사하였다. 통번역은 오영교 이사(신한파이낸스), 김 올레크 대표(법무법인 CIS Group), 전 엘레나(총영사관 통역), 이브라예프 다울레트(주카자흐스탄 대사관 통역)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참가자들의 번역과 통역을 심사하였다. 한국어는 문성기 소장(KF 모스크바사무소), 강상엽 관장(KOTRA 알마티무역관), 이유직 영사(총영사관), 김상수 법인장(Autogas Almaty)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참가자들의 말하기를 심사하였다.

시상식을 겸한 폐회식에는 전승민 총영사(주알마티 총영사관)가 참석하여 한국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한 학생들과 관계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였다. 심사 결과에 따라 1 위 3 명 300 달러, 2 위 3 명 200 달러, 3 위 4 명 100 달러, 장려상 10 명 15,000 텡게씩의 상금이 주어졌다. 특히 한국어부문의 1 위 올메세코바 라다(세계언어대 4 학년)은 KF 한국어연수펠로십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대학에서 1 년간 언어연수하는 특전이 주어진다.

8 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알마티 총영사관, 법무법인 CIS Group 과 이재혁 교수(부산외대), 김영대 대표(대양종합상사), 박필성 원장(부산 필피부과) 등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 개인들의 후원으로 여러 도시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었다.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어 예비교원 국외파견실습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국민대 한국어문학부와 국립국어원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2017 한국어 예비교원 국외 파견 및 실습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다.

한국어교육을 전공하는 12 명의 예비교원들은 알마티 지역의 한글학교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에서 한국어 수업과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직접 진행하며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이들은 한국어 교육에 관한 노하우를 배우게 되어 교원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데에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업은 이동은 교수를 연구책임으로 하여 공동연구원인 이수연, 이효정, 정연희(이상 국민대), 조남호(명지대), 김정훈(한양대), 김지혜(부산외대) 교수 등 국내·외 한국어교육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개발한 현지 교원 파견 프로그램이다. 추후에도 교원의 역량 강화 및 한국어 교육계의 내실을 다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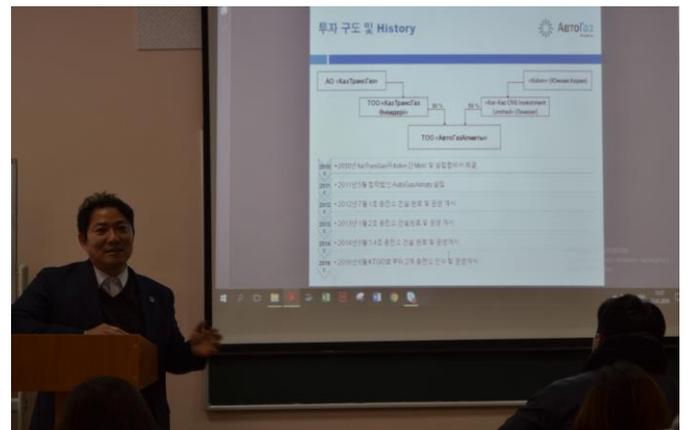
해외다문화교육 현장실습

2018년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세계언어대)에서 부산외대 다문화창의인재양성사업단의 해외다문화교육 현장실습이 실시되었다.

부산외대 한국어문화학부에서 한국어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생 3명이 김지혜 교수의 인솔 하에 세계언어대를 방문하였다.

1월 30일(화)에는 세계언어대 한국학과 1학년 2개 반을 대상으로 말하기 수업을 진행하였고, 1월 31일(수)에는 2학년 2개 반을 대상으로 문법 수업을 진행하였다.

2월 1일(목)에는 한국학과 2학년 27명을 대상으로 Quest 수행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제기차기, 공기놀이, 딱지치기 등 한국의 놀이문화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실제 놀이에 참여하게 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Global Triangle Eduvation 아카데미

2018년 1월 15일부터 2월 9일까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세계언어대)에서 GTE(Global Triangle Education) 아카데미가 진행되었다.

부산외대 러시아중양아시아학부와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교육부가 지원하는 CORE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다양한 특강 외에도 학생들은 고려인들의 이주사를 확인하기 위해 크질오르다를 방문하였으며, 현지 대학생들과의 만남을 위해 비슈케크 인문대, KIMEP 대 등을 방문하였다. 또한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황을 체험하기 위해 Autogas Almaty(대표 김상수)를 방문하는 등 다양한 견학프로그램을 통해 현장학습의 성과를 높일 수 있었다.



동카자흐 국립대 / 광성컬리지

제 1 회 동카자흐스탄 한국어경연대회

2017년 12월 19일 동카자흐스탄 오스카멘의 동카자흐 국립대에서 제 1회 동카자흐스탄 한국어 경연대회가 개최되었다.

동카자흐스탄 한국어교사모임이 주최하고 동카자흐스탄 고려인연합회,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 동카자흐스탄에 있는 4개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25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그동안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유감없이 펼쳐 보였다. 대회는 초급과 중급으로 나누어 말하기와 쓰기가 실시되었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 관련 경연대회는 알마티 등 대도시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만큼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준별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3명에게 부상으로 한국문화원에서 후원한 기념품이 제공되었으며,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알마티에서 개최될 한국어 경시대회가 참가 우선권이 지급되었다.



한국유학 설명회

2018년 2월 4일 동카자흐스탄에서는 한국어교사모임 주관으로 한국유학 설명회 및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언어연수부터 국가장학생까지 다양한 한국유학의 종류를 구분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학생들이 한국유학을 보다 가까이 실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질의응답을 통해 각자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 실제 참여한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한국유학의 길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한국어 공부를 중심으로 유학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한국 유학 설명회를 개최해서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한국유학을 안내할 예정이다.



TOPIK 모의고사 실시

2018년 2월 4일 동카자흐스탄 한국어교사모임 주관으로 TOPIK(한국어능력시험) 모의고사를 실시했다.

동카자흐스탄 전체 응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대한 실제 분위기를 살려서 모의고사를 실시했다. 이번 모의고사는 4월에 알미티에서 시행되는 토픽을 대비하고 또한 토픽 예비응시자들이 토픽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시험 이후 바로 문제풀이도 실시해서 학생들이 바로 자신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 토픽 준비 방향을 잡아갔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오늘 실수를 기반으로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정기적으로 모의고사를 실시해서 토픽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철저하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크질오르다 국립대

한국 문화의 날

2017년 12월 13일 주말마티 대한민국총영사관은 공공 외교의 일환으로 크질오르다 국립대를 방문하여 한국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도전 골든벨 형식의 한국 문화 퀴즈 대회, 한국 음식 체험, 총영사 특강, 케이팝 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 케이팝 공연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유명 케이팝 커버 그룹들뿐만 아니라 한국어학과 학생들도 직접 공연을 하여 학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2018년 11월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해외한국학 지원사업”의 후원으로 크질오르다 국립대 한국어학과가 주관하여 한국 문화의 날 행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컴퓨터센터 개관식

크질오르다 국립대는 2016년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교육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증한 컴퓨터로 컴퓨터 센터를 구축하여, 2017년 10월 18일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에는 전라남도교육청의 이종범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이 컴퓨터 센터는 모든 학생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시험 센터로도 사용되고 있다.



한국 요리 수업

2017년 11월 셋째 주 크질오르다 국립대 제1 캠퍼스 학생 식당에서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요리 수업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책으로만 접한 김밥, 미역국, 삼계탕 등 다양한 한국 요리를 직접 만들고 맛 보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경시대회 및 공모전 입상

2018년 2월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에서 개최된 “제 8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에서 본교 2학년 예심한 아라일림 학생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아라일림은 5월 주말마티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주최한 “Design Your Own Korea” 공모전에 ‘나만 알고 있는 한국의 매력’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전통 정원에 대한 동영상을 출품하여 1등 상을 수상하였다.



카자흐 국립대

2017 한국학주간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에서는 “한국학주간” 행사가 진행되었다. 본 행사는 연례행사로 “한국의 문화 역사 퀴즈대회”, “한국영화의 날”, “한국음식문화 체험의 날” 등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고, 마지막 날에는 전승민 총영사의 한 주일 동안의 다채로운 한국학주간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카자흐 국립대-건국대 공동학술대회

2017년 10월 20일-21일 이틀에 걸쳐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에서는 건국대 통일인문학과 및 통일인문학연구단과 공동으로, 중국 해양대 한국연구소, 일본 리즈메이칸대 코리아연구센터, 조선대 조선문제연구센터 등에서 온 연구자들과 더불어 “제 4회 통일인문학세계포럼”이 개최되었다. 학술포럼은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코리언의 역사적 트라우마”라는 주제 하에 진행되었다. 한국, 중국, 일본에서 발표자와 토론자 등 모두 33명이 참가했다.

의료봉사활동 통역지원

2017년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카자흐 국립대 내 건강검진센터 케레멧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 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활동이 진행되었다. 카자흐 국립대는 카자흐스탄 최고의 대학병원 설립을 목표로 한국의 우수한 대학병원들과 의료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학과 학생들은 통역지원을 수행하며 의료분야 통역과 용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선후배 친선화합모임

2017년 9월 7일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에서는 선후배 간의 친선모임이 개최되었다. CIS 지역의 특성상 대학 내에서 선후배 간의 상견례 모임이나 동아리 등의 활동이 한국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선후배 간의 상견례 모임은 학생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과 계기를 마련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 교육” 특강

2017년 9월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에서 재외동포재단의 지원 하에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 교육”이 진행되었다. 강의는 총 15주에 걸쳐서 “CIS의 한민족”이라는 주제로 특강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학부에 고려인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민족 구분 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었다. 특강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강의마다 고려인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전문가, 연구자들이 강사로 초빙되어 깊이 있고 실제적인 정보들을 전달했다.



카자흐 국립대

2018 카자흐스탄 동양학올림피아드

2018년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카자흐 국립대 동방학부에서 카자흐스탄 동양학올림피아드가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그 동안 쌓아 온 한국학 분야(역사, 언어)의 지식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입상자들에게는 푸짐한 상금과 상품이 지급되었다. 한국학올림피아드는 한국학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제고시켜주는 최고의 축제로 자리잡아나가고 있다.



카자흐 국립대-상명대 학생간담회

2018년 2월 9일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에서는 상명대 한국어문화학과 김한식 교수와 대학생 11명이 방문하여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 학생들과의 만남과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양교 학생 간의 만남을 통한 교류와 우호관계 구축 및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향후 교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신한은행 장학금 수여식

2018년 1월 29일 카자흐 국립대 본관에서 신한은행 카자흐스탄법인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이미 수년째 한국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는 행사로, 산학협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학생들에게 한국학에 대한 큰 관심과 열정을 제고시켜주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KF 한국전공대학원생펠로십

2018년 1월 10일 주알마티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 장학금수여식이 진행되었다. 본 행사는 국제교류재단의 대학원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카자흐 국립대 대학원생 5명(석사 3명, 박사 2명)과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대학원생 5명(석사 3명, 박사 2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장학사업은 우수한 한국학 인재들을 카자흐스탄의 대학원 과정에 적극 유치하여, 카자흐스탄 한국학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카자흐스탄 중기연 장학금전달식

2017년 11월 30일 한식당 “명가”에서 카자흐스탄 한국중소기업연합회의 장학금전달식이 있었다. 카자흐 국립대 5명,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5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2016년에 이어 2년째 진행된 본 행사는 한국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과 기회가 되고 있으며, 기업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위의 관심과 갈채를 받고 있다.